

문체부 장관, 한-멕시코 문화협력 방안 논의

- 9. 24. 최휘영 장관·박진영 공동위원장, 정상회담 계기 문화협력 양해각서 후속 논의
- 문화콘텐츠 공동 창·제작, 대중음악 분야 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협력기반 강화 약속

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함께 9월 24일(현지시간), 멕시코 국립섬유박물관에서 멕시코 문화부 클라우디아 쿠리엘 데 이카사 장관을 만나 한-멕시코 간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최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부 간 ‘문화협력 양해각서(MOU)’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, ▲문화·예술 및 산업 분야 협력 확대, ▲공동 창·제작 지원, ▲공동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

쿠리엘 데 이카사 장관 역시 양국 간 문화,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, 특히 영화·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양국 간 공동 창·제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 양국은 문화 양해각서(MOU) 후속조치를 위해, 실무 협의체(Working Group)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

이어 박 위원장은 멕시코 내 케이팝 공연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, 멕시코 내 대중문화 공연 시설 조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, 양측은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한편, 문체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 관광부와도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, 관광정책, 통계, 시장정보 등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.

따로 붙임 현장 사진

담당 부서	문화미디어산업실 국제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동은 (044-203-3311)
		담당자	사무관	이나은 (044-203-3312)
담당 부서	대중문화교류위원회 교류지원팀	책임자	팀장	박지숙 (02-725-8050)

